

청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와 특징

오호영¹⁾ · 이정수²⁾

요약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이념성향별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층의 이념성향 분포는 반시장 33.9%, 중도 38.2%, 친시장 27.9% 등으로 반시장 성향이 약간 우세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반시장 성향이 보다 강하였다. 청년들은 소득격차 확대, 공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 반대의사가 강한 반면, 경제성장이나 경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로짓모형 추정결과 본인소득보다는 가구소득이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계층 이동을 포함하면 소득계층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이념성향이 본인소득보다는 가구 소득계층에 의해 더 좌우되는 것은 분석대상 청년코호트가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신참자가 대부분인 특성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로짓분석 결과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따라 참선의향, 봉사활동 참여 등에 유의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투표참여의 경우에는 중도에 비해 친시장과 반시장의 투표참여가 유의하게 높았고, 친시장과 반시장간의 투표참여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지지정당이나 투표행위에는 일정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치적 입장차이가 복지확대, 경제성장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이슈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파악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년층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는 물론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는 취업난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심화되기 시작한 청년층 취업난은 정부의 거듭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겪고 있으며,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좌절과 분노가 심화되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 사회공동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빗댄 ‘3포세대’, 청년에게 한국은 지옥과도 같다는 ‘헬조선’, 사회경제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만나면 쉽게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금수저-흙수저’ 등의 신조어는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와 어른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학교교육을 받고 입시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도 청년층의 상당수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비정규 일자리로 취업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청년층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가중되자, 2014년부터 청년층 일반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아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견이 있으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등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년대상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복지체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은 원칙적으로 복지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으나, 청년층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사회가 청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사회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³⁾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복지수요가 존재하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초전환이 이루어졌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공적부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작으로, 2011년 논란 끝에 도입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70%를 수급대상으로 포함하는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 등이 대표적이다.(오호영 외, 2015)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청년층은 우리사회에서 진보 혹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복지확대라는 진보적 정책은 청년세대의 이념좌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적복지의 확대는 세대별로 볼 때 청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노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당대의 근로계층으로부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거둬서 당대의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청년층은 복지비용의 부담자가, 노령층은 은퇴자로서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 저축과 유사하게 해당세대가 적립한 범위 내에서 비용지출이 이루어지는 적립방식(reserve financed method)과 달리 부과방식(pay-as-you-go)은 여러 세대가 순차적으로 부양의무를 지고 부양혜택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제도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기에는 부양의무세대와 복지수혜세대간의 세대간 대타협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복지비용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우려 등을 감안한다면 복지제도의 확충에 대해 청년층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3) 서울시의 ‘청년수당(정확한 명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임)’은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원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청년배당은 3년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19~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서울시의 정책대상은 주로 취업하지 못한 학교밖 청년을 대상으로 함에 비해, 성남시는 성남시 거주 청년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상이하다.(위키백과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15. 1. 2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이념성향별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첫째로, 청년층의 이념형성과 관련된 분석으로서 청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지 분석한다. 청년층의 이념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하는 경우 청년층 취업난 해소가 향후 한국사회의 이념좌표를 설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사회공동체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이념지형을 기초로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흔히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친시장주의자일수록 사회공동체의 역할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지지하는 반시장주의자일수록 사회공동체의 확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일반의 상식이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분석한다.

II. 자료구성 및 변수의 주요 특성

1. 개념

이념 스펙트럼을 다룬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개념은 ‘진보-보수’, ‘좌파-우파’인데,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이념지향성, 사용하는 맥락 등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진보=좌파’, ‘보수=우파’로 혼용하기도 하는 등 개념적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 보수주의(conservatism)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로 정의되며,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변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이나 태도’를 말한다.(위키백과 인터넷자료. 검색일 : 2015. 1. 15.) 보수주의도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단지 방법론적 측면에서 진보주의가 표방하는 급진적, 혁명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온건적 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보주의와 대적점에 서는 이념은 보수주의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반동주의가 보다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진보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등을 포괄하며, 보수주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포괄한다.(위키백과 인터넷자료. 검색일 : 2015. 1. 15.)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혁명시대의 국민공회에서 급진혁명을 주장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던 자코뱅파가 좌측의석을, 온건개혁을 주장하면서 부르주아 입장을 대변하던 지롱드파가 우측의석을 차지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경미(2009)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주요한 기준이

4)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정의 및 관계에 대한 많은 국내 학자들의 시도가 있어왔으며, 양승태(1995), 김호기(2002), 채장수(2003) 등이 있다.

계급적 이해에 있다고 보고, 좌파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우파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체제전환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인 반면, 좌파와 우파의 구분기준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가에 의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일반의 강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진보주의 혹은 좌파는 공공연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드러내지 못하여 왔으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념성향을 표출하여왔다. 우리나라에서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의 두 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친시장과 반시장의 두 대척점을 기준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을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인데, 가치관, 생산성의 원천, 복지, 공기업, 소득격차, 경제목표, 규제, 시장개방 등의 영역에서 태도가 구분된다. 친시장주의자는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반면 반시장주의자는 형평성을 우위에 두며, 시장주의자는 경쟁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반면, 반시장주의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중시한다.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시장주의자는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반시장주의자는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시장주의자는 공기업 민영화,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용인, 규제축소, 시장개방 찬성을 주장하지만, 반시장주의자는 공기업 국유화, 소득격차 축소, 규제확대, 시장개방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표 1〉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반시장		친시장
· 가치관	형평성	↔	효율성
· 경제목표	분배	↔	성장
· 생산성의 원천	협력	↔	경쟁
· 복지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
· 공기업	국유화	↔	민영화
· 소득격차	축소	↔	확대
· 규제	확대	↔	축소
· 시장개방	반대	↔	찬성

한편, 북한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 혹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념스펙트럼에 따라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독재체제, 3대세습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통치하는 현실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서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통일 방안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남한과 북한의 기존체제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연방제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핵폭탄 개발 등 북한의 도발

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와 남북교류를 확대발전시킬 것인지 등에서도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2. 자료구성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각 2,000명과 학교 행정가 및 교사 그리고 가구 등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자료를 활용한다. 2004년의 1차 조사와 2013년의 10차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2004년 1차 조사당시 고3 코호트 4,000명(실업계고 2,000명, 인문계고 2,000명) 중 2013년까지 추적이 이루어진 총 1,942명⁵⁾ 대상으로 분석한다.

소득격차, 공공기업, 책임, 경쟁, 성공, 경제성장 등 6개 문항에 대해 1~10점으로 응답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반시장경제적 태도를 나타내도록 코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격차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가 “소득격차는 축소되어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득격차는 확대되어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을 갖도록 하였다. 공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업이 많아져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점, “공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⁶⁾,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점, “개인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의 값을 갖는다. 경쟁은 “경쟁은 사회에 해롭다”에 가까울수록 1점, “경쟁은 사회에 이롭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⁷⁾, 성공은 “성공을 위해서는 운과 인맥이 중요하다”에 가까울수록 1점,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⁸⁾, 경제성장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부유해질 수 있다”에 가까울수록 1점,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에 가까울수록 10점 등이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를 가지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 1~3점은 반시장, 4~7점은 중도, 8~10점은 친시장으로 구분하였다. 6개 문항을 종합했을 때 한 개인의 이념성향을 구분하는 기준은 6개 문항 중 친시장 응답수가 반시장 응답수보다 많은 사람은 이념 스펙트럼 상 친시장으로, 반대의 경우는 반시장으로, 친시장 문항수=반시장 문항수 이거나 6개 문항 모두 중도로 응답한 경우는 중도로 각각 코딩하였다.

5) 분석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은 차이가 있으며, 1,942명은 최대 표본수임에 주의해야 한다.

6), 7), 8) 당초 설문은 반대로 되어 있으나, 응답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친기업 성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자가 새로 코딩하였다.

〈표 2〉 문항별 응답빈도수

(단위 : 명, %)

	← 반시장			중립				친시장 ⇒			계	
	1	2	3	4	5	6	7	8	9	10		
소득격차는 축소되어야 한다	154 (7.9)	119 (6.1)	327 (16.8)	352 (18.1)	368 (18.9)	335 (17.3)	155 (8.0)	81 (4.2)	23 (1.2)	28 (1.4)	1,942 (100.0)	노력을 이끌어 내기위해 소득 격차는 확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122 (6.3)	144 (7.4)	288 (14.8)	329 (16.9)	481 (24.8)	335 (17.3)	122 (6.3)	66 (3.4)	25 (1.3)	30 (1.5)	1,942 (100.0)	공공기업은 모두 민영화 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81 (4.2)	101 (5.2)	207 (10.7)	252 (13.0)	389 (20.0)	392 (20.2)	293 (15.1)	148 (7.6)	44 (2.3)	35 (1.8)	1,942 (100.0)	개인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쟁은 사회에 해롭다	17 (0.9)	52 (2.7)	79 (4.1)	139 (7.2)	241 (12.4)	522 (26.9)	431 (22.2)	298 (15.3)	101 (5.2)	62 (3.2)	1,942 (100.0)	경쟁은 사회에 이롭다
성공을 위해서는 운과 인맥이 중요하다	75 (3.9)	99 (5.1)	227 (11.7)	251 (12.9)	294 (15.1)	301 (15.5)	258 (13.3)	226 (11.6)	105 (5.4)	106 (5.5)	1,942 (100.0)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부유해질 수 있다	41 (2.1)	39 (2.0)	146 (7.5)	165 (8.5)	305 (15.7)	448 (23.1)	391 (20.1)	263 (13.5)	98 (5.0)	46 (2.4)	1,942 (100.0)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

Ⅲ. 청년층 이념의 특성

1.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개 문항 모두를 종합하였을 때 반시장적 태도를 갖는 청년층은 33.9%, 친시장적 성향은 27.9%로 반시장적 성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시장적 성향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31.5%인데 반해 여자는 37.2%로 높았으며 반대로 친시장적 성향은 남자 30.7%, 여자 24.1%로 남자가 더 높았다.

6개 문항별로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반시장적 태도가 강한 순서는 ‘소득격차 축소’(30.9%)>‘공공기업 민영화 반대’(28.5%)>‘성공은 운과 인맥’(20.6%)>‘정부의 개인에 대한 책임 확대’(20.5%)>‘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부유해질 수 있다’(11.6%)>‘경쟁은 사회에 해롭다’(7.6%) 등이었다. 반대로 친시장적 태도가 강한 순서는 ‘경쟁은 사회에 이롭다’(23.7%)>‘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22.5%)>‘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22.5%)>‘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부유해 질 수 있다’(21.0%)>‘개인의 책임’(11.7%)>‘소득격차 확대’(6.8%)>‘공공기업 민영화 찬성’(6.2%) 등이었다.

청년들은 소득격차 확대, 공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반대의사가 강한 반면, 경제성장이나 경쟁

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제도 확충과 관련성이 높은 문항인 ‘정부의 개인에 대한 책임’과 ‘개인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개인에 대한 책임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20.0%로서 ‘개인 스스로의 책임 확대’를 주장한 비율 11.7%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아 복지제도 확대에 대해 긍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자는 ‘정부의 개인에 대한 책임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16.6%, ‘개인 스스로의 책임 확대’를 주장하는 비율이 14.1%로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여자는 같은 비율이 24.7%, 8.3%로서 복지확대에 대해 강한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표 3〉 문항별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성별	반시장		중립		친시장		계	
소득격차	남자	310	(27.6)	718	(63.8)	97	(8.6)	1,125	(100.0)
	여자	290	(35.5)	492	(60.2)	35	(4.3)	817	(100.0)
	계	600	(30.9)	1,210	(62.3)	132	(6.8)	1,942	(100.0)
공공기업	남자	317	(28.2)	737	(65.5)	71	(6.3)	1,125	(100.0)
	여자	237	(29.0)	530	(64.9)	50	(6.1)	817	(100.0)
	계	554	(28.5)	1,267	(65.2)	121	(6.2)	1,942	(100.0)
책임	남자	187	(16.6)	779	(69.2)	159	(14.1)	1,125	(100.0)
	여자	202	(24.7)	547	(67.0)	68	(8.3)	817	(100.0)
	계	389	(20.0)	1,326	(68.3)	227	(11.7)	1,942	(100.0)
성공	남자	208	(18.5)	635	(56.4)	282	(25.1)	1,125	(100.0)
	여자	193	(23.6)	469	(57.4)	155	(19.0)	817	(100.0)
	계	401	(20.6)	1,104	(56.8)	437	(22.5)	1,942	(100.0)
경제성장	남자	132	(11.7)	746	(66.3)	247	(22.0)	1,125	(100.0)
	여자	94	(11.5)	563	(68.9)	160	(19.6)	817	(100.0)
	계	226	(11.6)	1,309	(67.4)	407	(21.0)	1,942	(100.0)
경쟁	남자	83	(7.4)	739	(65.7)	303	(26.9)	1,125	(100.0)
	여자	65	(8.0)	594	(72.7)	158	(19.3)	817	(100.0)
	계	148	(7.6)	1,333	(68.6)	461	(23.7)	1,942	(100.0)
6문항 종합	남자	354	(31.5)	426	(37.9)	345	(30.7)	1,125	(100.0)
	여자	304	(37.2)	316	(38.7)	197	(24.1)	817	(100.0)
	계	658	(33.9)	742	(38.2)	542	(27.9)	1,942	(100.0)

2. 이념성향과 지역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별 지지율의 차이만큼이나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이념성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출신고교 소재지, 현재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충청강원’, ‘경상’, ‘전라제주’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반시장 성향은 ‘전라제주’ 권역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신고교 소재지 기준 48.8%, 현거주지 기준 49.0% 등으로 전체평균 33.9%에 비해 크게 높았다. 대체로 출신고교 소재지와 현거주지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이념성향이 지역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의미한다. 지역은 단순히 해당 지

역 거주자들이 공유하는 주도적 이념성향이 청년에게 전이되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타지역과의 상대적 우열, 역사적 경험 등이 공유되는 장이며 그 결과가 청년층의 이념성향으로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출신고교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반시장 성향이 강한 순서는 전라제주(48.8%)>서울경기인천(34.6%)>충청강원(32.0%)>경상(29.6%) 등의 순이었으며, 친시장 성향이 강한 순서는 충청강원(31.3%)>경상(28.0%)>서울경기인천(27.8%)>전라제주(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경상권에서조차 반시장 성향이 29.6%, 친시장 성향이 28.0%로 근소하게 반시장 성향이 높았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반시장 성향이 친시장 성향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로 이념성향을 평가할 때 청년층이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지역별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종합지수						계	
			반시장		중도		친시장			
출신고교 소재지	서울경기인천	남자	130	(34.0)	142	(37.2)	110	(28.8)	382	(100.0)
		여자	114	(35.3)	123	(38.1)	86	(26.6)	323	(100.0)
		계	244	(34.6)	265	(37.6)	196	(27.8)	705	(100.0)
	충청강원	남자	53	(28.3)	67	(35.8)	67	(35.8)	187	(100.0)
		여자	48	(37.2)	49	(38.0)	32	(24.8)	129	(100.0)
		계	101	(32.0)	116	(36.7)	99	(31.3)	316	(100.0)
	경상	남자	128	(28.1)	188	(41.2)	140	(30.7)	456	(100.0)
		여자	82	(32.3)	113	(44.5)	59	(23.2)	254	(100.0)
		계	210	(29.6)	301	(42.4)	199	(28.0)	710	(100.0)
	전라제주	남자	43	(43.0)	29	(29.0)	28	(28.0)	100	(100.0)
		여자	60	(54.1)	31	(27.9)	20	(18.0)	111	(100.0)
		계	103	(48.8)	60	(28.4)	48	(22.7)	211	(100.0)
계	남자	354	(31.5)	426	(37.9)	345	(30.7)	1,125	(100.0)	
	여자	304	(37.2)	316	(38.7)	197	(24.1)	817	(100.0)	
	계	658	(33.9)	742	(38.2)	542	(27.9)	1,942	(100.0)	
현거주지	서울경기인천	남자	166	(32.6)	190	(37.3)	153	(30.1)	509	(100.0)
		여자	154	(36.8)	157	(37.5)	108	(25.8)	419	(100.0)
		계	320	(34.5)	347	(37.4)	261	(28.1)	928	(100.0)
	충청강원	남자	47	(28.1)	64	(38.3)	56	(33.5)	167	(100.0)
		여자	38	(32.8)	48	(41.4)	30	(25.9)	116	(100.0)
		계	85	(30.0)	112	(39.6)	86	(30.4)	283	(100.0)
	경상	남자	111	(30.1)	147	(39.8)	111	(30.1)	369	(100.0)
		여자	68	(32.2)	98	(46.4)	45	(21.3)	211	(100.0)
		계	179	(30.9)	245	(42.2)	156	(26.9)	580	(100.0)
	전라제주	남자	30	(37.5)	25	(31.3)	25	(31.3)	80	(100.0)
		여자	44	(62.0)	13	(18.3)	14	(19.7)	71	(100.0)
		계	74	(49.0)	38	(25.2)	39	(25.8)	151	(100.0)
	계	남자	354	(31.5)	426	(37.9)	345	(30.7)	1,125	(100.0)
		여자	304	(37.2)	316	(38.7)	197	(24.1)	817	(100.0)
		계	658	(33.9)	742	(38.2)	542	(27.9)	1,942	(100.0)

3. 이념성향과 생활상태 및 부모소득

본인의 취업상태 여부에 따라 이념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념성향 분포를 살펴보았다. 미취업자의 반시장 성향비율이 34.5%로 취업자의 반시장 성향비율 33.7%에 비해 0.8%p 높았고, 친시장성향은 취업자가 28.6%로 미취업자의 25.5%에 비해 3.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경우 반시장 비율(31.4%)보다 친기업 비율(32.1%)이 더 높았던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반시장 비율이 10%p이상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5〉 이념성향과 취업

(단위 : 명, %)

		종합지수						계	
		반시장		중도		친시장			
남자	취업자	276	(31.4)	321	(36.5)	282	(32.1)	879	(100.0)
	미취업자	78	(31.7)	105	(42.7)	63	(25.6)	246	(100.0)
	계	354	(31.5)	426	(37.9)	345	(30.7)	1,125	(100.0)
여자	취업자	232	(36.9)	247	(39.3)	149	(23.7)	628	(100.0)
	미취업자	72	(38.1)	69	(36.5)	48	(25.4)	189	(100.0)
	계	304	(37.2)	316	(38.7)	197	(24.1)	817	(100.0)
계	취업자	508	(33.7)	568	(37.7)	431	(28.6)	1,507	(100.0)
	미취업자	150	(34.5)	174	(40.0)	111	(25.5)	435	(100.0)
	계	658	(33.9)	742	(38.2)	542	(27.9)	1,942	(100.0)

청년층이 속한 가구소득계층에 따라 이념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OECD 기준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즉, 2004년 1차 조사 당시 가구 중위소득 250만원을 이용하여, ‘250만원×2/3미만’ 인 가구는 저소득층, ‘250만원×2/3 이상~250만원×4/3이하’ 중소득층, ‘250만원×4/3초과’를 고소득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층의 이념성향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반시장 비율은 가구 저소득층 37.6%, 중소득층 33.0%, 고소득층 31.4%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친시장 비율은 가구 저소득층 25.4%, 중소득층 27.6%, 고소득층 31.2%로 높아졌다.

〈표 6〉 이념성향과 소득계층

(단위 : 명, %)

			종합지수						계	
			반시장		중도		친시장			
부모소득 수준	남자	저소득층	107	(32.9)	128	(39.4)	90	(27.7)	325	(100.0)
		중소득층	160	(32.0)	188	(37.6)	152	(30.4)	500	(100.0)
		고소득층	87	(29.0)	110	(36.7)	103	(34.3)	300	(100.0)
		계	354	(31.5)	426	(37.9)	345	(30.7)	1,125	(100.0)

<표 계속>

			종합지수						계	
			반시장		중도		친시장			
부모소득 수준	여자	저소득층	102	(44.2)	78	(33.8)	51	(22.1)	231	(100.0)
		중소득층	129	(34.3)	157	(41.8)	90	(23.9)	376	(100.0)
		고소득층	73	(34.8)	81	(38.6)	56	(26.7)	210	(100.0)
		계	304	(37.2)	316	(38.7)	197	(24.1)	817	(100.0)
	계	저소득층	209	(37.6)	206	(37.1)	141	(25.4)	556	(100.0)
		중소득층	289	(33.0)	345	(39.4)	242	(27.6)	876	(100.0)
		고소득층	160	(31.4)	191	(37.5)	159	(31.2)	510	(100.0)
계		658	(33.9)	742	(38.2)	542	(27.9)	1,942	(100.0)	

4. 이념성향과 취업의 질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의 질이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의 질을 판단해볼 수 있는 정규직 여부, 선망직장여부, 본인소득계층, 계층이동 등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정규직 여부에 따른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반시장 비율은 비정규직 32.3%, 정규직 34.0%로 정규직이 약간 높고, 친시장 비율은 비정규직 29.3%, 정규직 27.9%로 비정규직이 다소 높았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친시장적이라는 사실은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여자 정규직의 반시장 비율이 높고 친시장 비율이 낮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둘째로, 선망직장⁹⁾ 여부에 따른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선망직장 종사자가 비선망직장 종사자에 비해 친시장 성향이 높았다. 선망직장 종사자의 반시장 비율은 34.5%로 비선망직장 종사자의 33.4%에 비해 0.9%p 높았고, 친시장 비율은 선망직장 종사자 31.3%, 비선망직장 종사자 26.9%로 선망직장 종사자가 4.4%p 높게 나타났다.

셋째로, 본인소득계층¹⁰⁾을 기준으로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본인소득계층이 상승할수록 중도층이 작아지고 반시장 및 친시장 성향이 각각 높아져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의 증가가 반시장 성향을 줄이고, 친시장 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넷째로, 2013년 현재의 본인소득계층(저소득, 중소득, 고소득)과 고3당시의 가구소득계층(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을 비교하여 계층이동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반시장 비율은 소득계층 하향이동 30.5%, 수평이동 31.8%, 상향이동 38.5%로 계층상향 이동이 반시장 성향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시장 비율은 하향이동 30.2%, 수평이동 27.8%, 상향이동 27.0%로 계층상향이동이 친시장 성향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층의 계층상향이동이 친시장 성향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선망직장은 취업자 중에서 직장유형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국인기업 등의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0) 본인소득계층의 구분은 OECD 기준에 따라 소득이 파악된 2013년의 개인별 월평균소득의 중위값인 190만원을 이용하여, '190만원×2/3미만' 는 저소득층, '190만원×2/3이상~190만원×4/3이하' 중소득층, '190만원×4/3초과'를 고소득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표 7〉 이념성향과 취업의 질, 계층이동

(단위 : 명, %)

			종합지수						계	
			반시장		중도		친시장			
정규직 여부	남자	비정규직	43	(31.2)	54	(39.1)	41	(29.7)	138	(100.0)
		정규직	186	(31.2)	217	(36.3)	194	(32.5)	597	(100.0)
		계	229	(31.2)	271	(36.9)	235	(32.0)	735	(100.0)
	여자	비정규직	32	(34.0)	35	(37.2)	27	(28.7)	94	(100.0)
		정규직	166	(38.0)	177	(40.5)	94	(21.5)	437	(100.0)
		계	198	(37.3)	212	(39.9)	121	(22.8)	531	(100.0)
	계	비정규직	75	(32.3)	89	(38.4)	68	(29.3)	232	(100.0)
		정규직	352	(34.0)	394	(38.1)	288	(27.9)	1,034	(100.0)
		계	427	(33.7)	483	(38.2)	356	(28.1)	1,266	(100.0)
선망직장 여부	남자	선망직장	71	(31.3)	75	(33.0)	81	(35.7)	227	(100.0)
		비선망직장	158	(31.1)	196	(38.6)	154	(30.3)	508	(100.0)
		계	229	(31.2)	271	(36.9)	235	(32.0)	735	(100.0)
	여자	선망직장	47	(40.9)	42	(36.5)	26	(22.6)	115	(100.0)
		비선망직장	151	(36.3)	170	(40.9)	95	(22.8)	416	(100.0)
		계	198	(37.3)	212	(39.9)	121	(22.8)	531	(100.0)
	계	선망직장	118	(34.5)	117	(34.2)	107	(31.3)	342	(100.0)
		비선망직장	309	(33.4)	366	(39.6)	249	(26.9)	924	(100.0)
		계	427	(33.7)	483	(38.2)	356	(28.1)	1,266	(100.0)
본인소득 계층	남자	저소득층	19	(25.3)	32	(42.7)	24	(32.0)	75	(100.0)
		중소득층	157	(31.7)	188	(38.0)	150	(30.3)	495	(100.0)
		고소득층	53	(32.1)	51	(30.9)	61	(37.0)	165	(100.0)
		계	229	(31.2)	271	(36.9)	235	(32.0)	735	(100.0)
	여자	저소득층	29	(31.2)	37	(39.8)	27	(29.0)	93	(100.0)
		중소득층	149	(39.3)	148	(39.1)	82	(21.6)	379	(100.0)
		고소득층	20	(33.9)	27	(45.8)	12	(20.3)	59	(100.0)
		계	198	(37.3)	212	(39.9)	121	(22.8)	531	(100.0)
	계	저소득층	48	(28.6)	69	(41.1)	51	(30.4)	168	(100.0)
		중소득층	306	(35.0)	336	(38.4)	232	(26.5)	874	(100.0)
		고소득층	73	(32.6)	78	(34.8)	73	(32.6)	224	(100.0)
		계	427	(33.7)	483	(38.2)	356	(28.1)	1,266	(100.0)
계층이동	남자	하향이동	42	(27.6)	59	(38.8)	51	(33.6)	152	(100.0)
		수평이동	86	(28.5)	119	(39.4)	97	(32.1)	302	(100.0)
		상향이동	101	(35.9)	93	(33.1)	87	(31.0)	281	(100.0)
		계	229	(31.2)	271	(36.9)	235	(32.0)	735	(100.0)
	여자	하향이동	52	(33.3)	62	(39.7)	42	(26.9)	156	(100.0)
		수평이동	83	(36.1)	96	(41.7)	51	(22.2)	230	(100.0)
		상향이동	63	(43.4)	54	(37.2)	28	(19.3)	145	(100.0)
		계	198	(37.3)	212	(39.9)	121	(22.8)	531	(100.0)
	계	하향이동	94	(30.5)	121	(39.3)	93	(30.2)	308	(100.0)
		수평이동	169	(31.8)	215	(40.4)	148	(27.8)	532	(100.0)
		상향이동	164	(38.5)	147	(34.5)	115	(27.0)	426	(100.0)
		계	427	(33.7)	483	(38.2)	356	(28.1)	1,266	(100.0)

5. 이념성향과 공동체의식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참전의향, 투표참여, 봉사활동 참여 등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투표참여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였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참전은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기부·후원이 있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각각 집계하였다.

첫째, 참전의향에 있어서는 친시장 성향일수록 참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참전의향은 반시장 79.4%, 중도 84.0%, 친시장 85.8%를 보였다.

둘째, 18대 대선에 투표한 비율은 반시장 76.6%, 중도 73.2%, 친시장 79.3%로 이념스펙트럼의 양극단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고 중도성향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사실상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양당제적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정당구조 하에서 대통령선거는 이념적 충돌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단에 속할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에서 반시장 성향의 참여율이 그나마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반시장 9.9%, 중도 8.5%, 친시장 9.0% 등이었다.

〈표 8〉 이념성향과 공동체의식

(단위 : 명, %)

		아니오		예		계		
참전의향	남자	반시장	73	(20.6)	281	(79.4)	354	(100.0)
		중도	68	(16.0)	358	(84.0)	426	(100.0)
		친시장	49	(14.2)	296	(85.8)	345	(100.0)
		계	190	(16.9)	935	(83.1)	1,125	(100.0)
	여자	반시장	201	(66.1)	103	(33.9)	304	(100.0)
		중도	209	(66.1)	107	(33.9)	316	(100.0)
		친시장	132	(67.0)	65	(33.0)	197	(100.0)
		계	542	(66.3)	275	(33.7)	817	(100.0)
	계	반시장	274	(41.6)	384	(58.4)	658	(100.0)
		중도	277	(37.3)	465	(62.7)	742	(100.0)
		친시장	181	(33.4)	361	(66.6)	542	(100.0)
		계	732	(37.7)	1,210	(62.3)	1,942	(100.0)
18대 대선 투표	남자	반시장	79	(22.3)	275	(77.7)	354	(100.0)
		중도	113	(26.5)	313	(73.5)	426	(100.0)
		친시장	64	(18.6)	281	(81.4)	345	(100.0)
		계	256	(22.8)	869	(77.2)	1,125	(100.0)
	여자	반시장	75	(24.7)	229	(75.3)	304	(100.0)
		중도	86	(27.2)	230	(72.8)	316	(100.0)
		친시장	48	(24.4)	149	(75.6)	197	(100.0)
		계	209	(25.6)	608	(74.4)	817	(100.0)

<표 계속>

		아니오		예		계		
18대대선 투표	계	반시장	154	(23.4)	504	(76.6)	658	(100.0)
		중도	199	(26.8)	543	(73.2)	742	(100.0)
		친시장	112	(20.7)	430	(79.3)	542	(100.0)
		계	465	(23.9)	1,477	(76.1)	1,942	(100.0)
자원봉사 활동	남자	반시장	329	(92.9)	25	(7.1)	354	(100.0)
		중도	400	(93.9)	26	(6.1)	426	(100.0)
		친시장	320	(92.8)	25	(7.2)	345	(100.0)
		계	1,049	93.2	76	(6.8)	1,125	(100.0)
	여자	반시장	264	(86.8)	40	(13.2)	304	(100.0)
		중도	279	(88.3)	37	(11.7)	316	(100.0)
		친시장	173	(87.8)	24	(12.2)	197	(100.0)
		계	716	(87.6)	101	(12.4)	817	(100.0)
	계	반시장	593	(90.1)	65	(9.9)	658	(100.0)
		중도	679	(91.5)	63	(8.5)	742	(100.0)
		친시장	493	(91.0)	49	(9.0)	542	(100.0)
		계	1,765	(90.9)	177	(9.1)	1,942	(100.0)

〈표 9〉 지역별 이념성향과 공동체의식

(단위 : 명, %)

		아니오		예		계		
참전 의향	서울경기 인천	반시장	101	(41.4)	143	(58.6)	244	(100.0)
		중도	104	(39.2)	161	(60.8)	265	(100.0)
		친시장	71	(36.2)	125	(63.8)	196	(100.0)
		계	276	(39.1)	429	(60.9)	705	(100.0)
	충청강원	반시장	44	(43.6)	57	(56.4)	101	(100.0)
		중도	47	(40.5)	69	(59.5)	116	(100.0)
		친시장	30	(30.3)	69	(69.7)	99	(100.0)
		계	121	(38.3)	195	(61.7)	316	(100.0)
	경상	반시장	75	(35.7)	135	(64.3)	210	(100.0)
		중도	102	(33.9)	199	(66.1)	301	(100.0)
		친시장	60	(30.2)	139	(69.8)	199	(100.0)
		계	237	(33.4)	473	(66.6)	710	(100.0)
	전라제주	반시장	54	(52.4)	49	(47.6)	103	(100.0)
		중도	24	(40.0)	36	(60.0)	60	(100.0)
		친시장	20	(41.7)	28	(58.3)	48	(100.0)
		계	98	(46.4)	113	(53.6)	211	(100.0)
계	반시장	274	(41.6)	384	(58.4)	658	(100.0)	
	중도	277	(37.3)	465	(62.7)	742	(100.0)	
	친시장	181	(33.4)	361	(66.6)	542	(100.0)	
	계	732	(37.7)	1,210	(62.3)	1,942	(100.0)	
18대대선 투표	서울경기 인천	반시장	45	(18.4)	199	(81.6)	244	(100.0)
		중도	70	(26.4)	195	(73.6)	265	(100.0)
		친시장	34	(17.3)	162	(82.7)	196	(100.0)
		계	149	(21.1)	556	(78.9)	705	(100.0)

<표 계속>

			아니오		예		계	
18대대선 투표	충청강원	반시장	23	(22.8)	78	(77.2)	101	(100.0)
		중도	33	(28.4)	83	(71.6)	116	(100.0)
		친시장	15	(15.2)	84	(84.8)	99	(100.0)
		계	71	(22.5)	245	(77.5)	316	(100.0)
	경상	반시장	62	(29.5)	148	(70.5)	210	(100.0)
		중도	80	(26.6)	221	(73.4)	301	(100.0)
		친시장	53	(26.6)	146	(73.4)	199	(100.0)
		계	195	(27.5)	515	(72.5)	710	(100.0)
	전라제주	반시장	24	(23.3)	79	(76.7)	103	(100.0)
		중도	16	(26.7)	44	(73.3)	60	(100.0)
		친시장	10	(20.8)	38	(79.2)	48	(100.0)
		계	50	(23.7)	161	(76.3)	211	(100.0)
	계	반시장	154	(23.4)	504	(76.6)	658	(100.0)
		중도	199	(26.8)	543	(73.2)	742	(100.0)
		친시장	112	(20.7)	430	(79.3)	542	(100.0)
		계	465	(23.9)	1,477	(76.1)	1,942	(100.0)
자원봉사 활동	서울경기 인천	반시장	210	(86.1)	34	(13.9)	244	(100.0)
		중도	239	(90.2)	26	(9.8)	265	(100.0)
		친시장	178	(90.8)	18	(9.2)	196	(100.0)
		계	627	(88.9)	78	(11.1)	705	(100.0)
	충청강원	반시장	88	(87.1)	13	(12.9)	101	(100.0)
		중도	105	(90.5)	11	(9.5)	116	(100.0)
		친시장	89	(89.9)	10	(10.1)	99	(100.0)
		계	282	(89.2)	34	(10.8)	316	(100.0)
	경상	반시장	195	(92.9)	15	(7.1)	210	(100.0)
		중도	278	(92.4)	23	(7.6)	301	(100.0)
		친시장	181	(91.0)	18	(9.0)	199	(100.0)
		계	654	(92.1)	56	(7.9)	710	(100.0)
	전라제주	반시장	100	(97.1)	3	(2.9)	103	(100.0)
		중도	57	(95.0)	3	(5.0)	60	(100.0)
		친시장	45	(93.8)	3	(6.3)	48	(100.0)
		계	202	(95.7)	9	(4.3)	211	(100.0)
계	반시장	593	(90.1)	65	(9.9)	658	(100.0)	
	중도	679	(91.5)	63	(8.5)	742	(100.0)	
	친시장	493	(91.0)	49	(9.0)	542	(100.0)	
	계	1,765	(90.9)	177	(9.1)	1,942	(100.0)	

IV. 로짓분석

1. 이념성향 분석

가. 추정모형

본 논문에서 청년층의 이념성향은 반시장, 중도, 친시장으로 구분되는 이산변수의 특성을 갖는다. 다항선택모형(multinomial choice model)을 적용하려면 선택간의 배타성이 충족될 것(exclusiveness), 선택이 모든 경우의 수를 소진할 것(exhaustiveness), 선택의 수가 유한할 것(finiteness) 등의 특성을 요구하는데, 본고의 청년층 이념성향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다항로짓 모형은 종속 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범주를 기준범주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범주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한 상대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Maddala, 1983).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3가지 이념성향이므로 특정 이념성향 j 에 속할 확률을 $P(Y=j)$ 라고 하면,

$$P(Y=j) = \frac{e^{\sum_{k=1}^K \beta_{jk}x_k}}{1 + \sum_{j=1}^{J-1} e^{\sum_{k=1}^K \beta_{jk}x_k}} \quad (1)$$

식 (1)에서 J 는 범주의 수를, k 는 설명변수의 수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기준범주 J 에 포함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Y=j) = \frac{1}{1 + \sum_{j=1}^{J-1} e^{\sum_{k=1}^K \beta_{jk}x_k}} \quad (2)$$

수식 (1), (2)로부터 기준범주 J 집단에 비해 비교범주 j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rac{P(Y=j)}{P(Y=J)} = e^{\sum_{k=1}^K \beta_{jk}X_k} \quad (3)$$

이 식에 로그를 취하여 간단히 하면,

$$\log\left[\frac{P(Y=j)}{P(Y=J)}\right] = \sum_{k=1}^K \beta_{jk} X_k \quad (4)$$

이 된다. 결론적으로 다항로짓 모형에서는 위의 수식 (4)에서 β 를 추정하는 것이며, 해석의 편의상 식 (3)의 평균에서의 한계적 효과(dy/dx)를 제시한다.

나. 추정결과

다항로짓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이념성향을 반시장, 중도, 친시장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친시장을 기준범주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출신고교 유형더미, 출신고교 소재지 더미, 성더미, 출신지역 더미, 학력더미, 가구소득더미, 본인소득더미, 계층이동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1,357명이며, 종속변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0〉 변수의 주요 특성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 일반계고=0)	1,357	0.519	0.500	0	1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1,357	0.870	0.336	0	1
성더미(여자=1, 남자=0)	1,357	0.416	0.493	0	1
고3당시사교육(0=받지않음, 1=받음)	1,357	0.471	0.499	0	1
지역(전라제주=1, 기타=0)	1,357	0.125	0.331	0	1
고졸더미(고졸=1, 기타=0)	1,357	0.164	0.371	0	1
전문대졸더미(전문대졸=1, 기타=0)	1,357	0.368	0.482	0	1
4년제대졸더미(4년제대졸=1, 기타=0)	1,357	0.468	0.499	0	1
가구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1,357	0.296	0.456	0	1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1,357	0.461	0.499	0	1
가구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 기타=0)	1,357	0.244	0.430	0	1
본인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1,357	0.141	0.348	0	1
본인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1,357	0.668	0.471	0	1
본인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 기타=0)	1,357	0.191	0.393	0	1
하향계층이동더미(하향=1, 기타=0)	1,357	0.247	0.431	0	1
수평계층이동더미(수평=1, 기타=0)	1,357	0.419	0.494	0	1
상향계층이동더미(상향=1, 기타=0)	1,357	0.334	0.472	0	1
18대대선투표(참여=1, 불참=0)	1,357	0.758	0.428	0	1
참전의사(있음=1, 없음=0)	1,357	0.635	0.482	0	1
자원봉사(있음=1, 없음=0)	1,357	0.106	0.308	0	1
반시장(맞음=1, 기타=0)	1,357	0.335	0.472	0	1
중도(맞음=1, 기타=0)	1,357	0.379	0.485	0	1
친시장(맞음=1, 기타=0)	1,357	0.286	0.452	0	1

로짓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은 총 4가지를 추정하였는데 유의한 변수는 성더미, 가구소득더미, 출신고교전라제주더미 등이며, 설명변수가 가장 많이 포함된 모델 4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시장을 기준범주로 하여 반시장 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한계효과(dy/dx)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반시장 확률은 5.8% 높았고, 고교출신지역이 전라제주지역일 경우 기타지역에 비해 반시장 확률은 13.3% 높았다. 가구소득은 소득계층이동¹¹⁾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반시장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지만, 소득계층이동 변수를 포함하면 가구소득의 이념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소득계층과 가구소득계층을 추정모형에 동시에 포함하여 추정하였을 때(모형 3 기준) 본인소득계층의 효과는 관측되지 않은 반면, 가구소득계층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 청년층의 이념에 대해 가구소득계층의 영향력이 훨씬 큼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친시장을 기준범주로 하여 중도 성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한계효과(dy/dx)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중도 확률이 3.5% 높으며, 고소득가구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의 중도 확률은 13.0%, 중소득가구의 중도확률은 8.1% 각각 높았다.

〈표 11〉 이념성향 추정결과

더미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dy/dx
반 시 장 / 친 시 장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 일반계고=0)	0.051 (0.180)	0.011 (0.181)	0.013 (0.182)	0.003 (0.182)	-0.009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0.209 (0.216)	0.171 (0.218)	0.166 (0.218)	0.163 (0.219)	0.005
	성더미(여자=1, 남자=0)	0.487*** (0.146)	0.490*** (0.146)	0.505*** (0.148)	0.505*** (0.149)	0.058
	고3당시사교육(0=받지않음, 1=받음)	0.074 (0.158)	0.162 (0.162)	0.151 (0.163)	0.150 (0.163)	0.024
	지역(전라제주=1, 기타=0)	0.558** (0.231)	0.535** (0.231)	0.533* (0.232)	0.540** (0.232)	0.133
	전문대졸더미(전문대졸=1, 기타=0)	-0.076 (0.215)	-0.017 (0.217)	-0.050 (0.217)	-0.059 (0.218)	-0.001
	4년제대졸더미(4년제대졸=1, 기타=0)	-0.100 (0.233)	0.011 (0.238)	0.020 (0.239)	0.009 (0.239)	0.024
	가구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0.549*** (0.211)	0.553*** (0.212)	0.823 (0.593)	0.056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313* (0.179)	0.315* (0.180)	0.533 (0.343)	0.038
	본인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0.292 (0.251)	-0.553 (0.555)	-0.045
	본인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142 (0.182)	0.028 (0.306)	0.027

<표 계속>

11) 소득계층이동이란 가구소득계층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의 3계층으로 나누고, 본인소득계층을 동일하게 나누어 상향이동, 수평이동, 하향이동으로 더미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

	더미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dy/dx
	하향계층이동더미(하향=1, 기타=0)				0.356 (0.656)	-0.036
	수평계층이동더미(수평=1, 기타=0)				0.012 (0.362)	-0.061
	상수	-0.273 (0.314)	-0.639* (0.347)	-0.686* (0.365)	-0.830* (0.496)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 일반계고=0)	0.105 (0.172)	0.088 (0.173)	0.081 (0.173)	0.072 (0.174)	0.017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0.301 (0.211)	0.270 (0.213)	0.262 (0.213)	0.246 (0.214)	0.037
	성더미(여자=1, 남자=0)	0.451*** (0.142)	0.448*** (0.142)	0.432*** (0.144)	0.423*** (0.144)	0.035
	고3당시사교육(0=받지않음, 1=받음)	0.047 (0.153)	0.086 (0.157)	0.076 (0.157)	0.075 (0.157)	-0.001
	지역(전라제주=1, 기타=0)	-0.082 (0.240)	-0.087 (0.240)	-0.097 (0.240)	-0.098 (0.240)	-0.092
	전문대졸더미(전문대졸=1, 기타=0)	-0.101 (0.208)	-0.083 (0.210)	-0.098 (0.210)	-0.098 (0.211)	-0.016
	4년제대졸더미(4년제대졸=1, 기타=0)	-0.200 (0.227)	-0.160 (0.231)	-0.155 (0.231)	-0.173 (0.232)	-0.042
	가구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0.251 (0.206)	0.238 (0.206)	0.997* (0.569)	0.130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282* (0.171)	0.273 (0.171)	0.631* (0.324)	0.081
	본인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0.076 (0.235)	-0.611 (0.535)	-0.073
	본인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186 (0.177)	-0.165 (0.299)	-0.042
	하향계층이동더미(하향=1, 기타=0)				(0.905) 0.635	0.168
	수평계층이동더미(수평=1, 기타=0)				(0.501) 0.352	0.117
	상수	-0.090 (0.306)	-0.296 (0.336)	-0.396 (0.353)	-0.857* (0.477)	
	표본수	1357	1357	1357	1357	
	Log likelihood	-1466.345	-1462.078	-1459.24	-1457.17	
	LR $\chi^2(14)$	31.26	39.8	45.47	49.6	
	Prob > χ^2	0.005	0.002	0.002	0.004	
	Pseudo R ²	0.011	0.013	0.015	0.017	

주 :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

2. 이념과 공동체에 대한 태도 분석

가. 추정모형

청년층의 이념성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참여, 주인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표참여,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등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투표참여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였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참전은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기부·후원이 있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각각 집계하였다. 투표참여,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등은 모두 “예”, “아니오” 중에서 선택하는 이항선택의 상황이므로 추정모형은 이항선택모형이 적합하며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을 가정하는 로짓모형을 적용한다.

나. 추정결과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참여,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 학력 등이며, 이념적 성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선 여성은 투표참여, 참전의향에서는 남성에 비해 소극적이었지만, 봉사활동참여는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을 비교의 기준범주로 삼았을 때 4년제 대졸의 경우 투표참여, 봉사활동 참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은 투표참여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는데, 친시장과 반시장에 비해 중도적 성향의 청년층은 투표참여가 저조하였고 친시장과 반시장간의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양당제적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상 이념 성향에 따라 지지후보가 달라지고 이것이 투표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이 뚜렷할 수록 투표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윤성이(2014)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관적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정당 지지여부이며, 보수 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이념성향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념성향과 공동체에 대한 태도 추정결과

변수명	투표참여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추정계수	dy/dx	추정계수	dy/dx	추정계수	dy/dx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 일반계고=0)	-0.249 (0.157)	-0.023	-0.089 (0.162)	-0.061	-0.408* (0.229)	-0.024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0.129 (0.219)	-0.044	-0.277 (0.203)	-0.020	-0.291 (0.239)	-0.033
성더미(여자=1, 남자=0)	-0.260** (0.134)	-0.046	-2.360*** (0.137)	-0.519	0.767*** (0.189)	0.062
전문대졸더미(전문대졸=1, 기타=0)	0.115 (0.181)	0.020	0.086 (0.2)	0.019	-0.196 (0.335)	-0.016

<표 계속>

변수명	투표참여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추정계수	dy/dx	추정계수	dy/dx	추정계수	dy/dx
4년제대졸더미(4년제대졸=1, 기타=0)	0.560*** (0.209)	0.100	0.143 (0.222)	0.032	0.615* (0.336)	0.050
가구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0.392 (0.575)	0.070	0.751 (0.583)	0.165	0.284 (0.764)	0.023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156 (0.335)	-0.028	0.39 (0.329)	0.086	0.343 (0.442)	0.028
본인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0.25 (0.542)	-0.045	-0.865 (0.543)	-0.191	-0.891 (0.745)	-0.072
본인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173 (0.293)	-0.031	-0.442 (0.302)	-0.098	-0.473 (0.401)	-0.038
하향계층이동더미(하향=1, 기타=0)	0.479 (0.629)	0.086	0.892 (0.640)	0.197	0.0462 (0.867)	0.004
수평계층이동더미(수평=1, 기타=0)	0.444 (0.342)	0.079	0.396 (0.354)	0.087	0.188 (0.479)	0.015
반시장(맞음=1, 기타=0)	-0.112 (0.171)	-0.020	-0.142 (0.171)	-0.031	-0.019 (0.230)	-0.002
중도(맞음=1, 기타=0)	-0.307* (0.163)	-0.055	-0.012 (0.167)	-0.003	-0.093 (0.227)	-0.008
상수	1.190** (0.472)		1.570*** (0.476)		-2.240*** (0.640)	
표본수	1,357		1,357		1,357	
Log likelihood	-729.421		-702.782		-427.922	
LR $\chi^2(13)$	42.11		375.14		62.35	
Prob > χ^2	0.0001		0		0	
Pseudo R ²	0.0281		0.2107		0.0679	

V. 주요결론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이념성향별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이념성향 분포는 반시장 33.9%, 중도 38.2%, 친시장 27.9% 등으로 반시장 성향이 약간 우세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반시장 성향이 보다 강하였다. 청년들은 소득격차 확대, 공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 반대의사가 강한 반면, 경제성장이나 경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로짓모형 추정결과 본인소득보다는 가구소득이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계층이동을 포함하면 소득계층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이념성향이 본인소득보다는 가구소득계층에 의해 더 좌우되는 것은 분석대상 청년코호트가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신참자가 대부분인 특성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경험이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로짓분석 결과 청년층의 이념성향에 따라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등에 유의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투표참여의 경우에는 중도에 비해 친시장과 반시장의 투표참여가 유의하게 높았고, 친시장과 반시장간의 투표참여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념성향에 따라 지지정당이나 투표행위에는 일정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치적 입장차이가 복지확대, 경제성장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이슈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파악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복지제도의 확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이념적 성향은 새로운 사회운영의 틀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개발연대의 사회시스템으로는 형평성, 분배적 정의, 약자보호 등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복지제도 확대는 세대간 부조의 원리에 상당부분 기초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이념성향과 태도에 천착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경미(2009).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pp.45~60.
- 김호기(2002). “한국 지식인과 지식사회의 구도.” 『말, 권력, 지식인』, 서울: 아르케.
- 양승태(1995). “한국 보수주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pp.7~32.
- 오호영 외(2015). 『사회정책을 위한 미래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이정수(2015). “청년층의 계층이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제10회 KEEP학술대회 논문집』.
- 윤성이(2014). “청년세대 이념갈등의 현실과 전망”. 『갈등관리포럼 발표집』. 4월 16일.
- 위키백과 한국어판 인터넷 자료. 검색어: 보수주의.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 2015. 1. 15.
- 위키백과 한국어판 인터넷 자료. 검색어: 청년수당.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 2015. 1. 29.
- 채장수(2003).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pp.219~238.
-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조사 원자료.
- Maddala, G. S.(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Attitude towards the Market Economy of Korean Youth

Oh Ho-Young (KRIVET), Lee Jung Soo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ttitude towards the market economy of Korean youth and tried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consciousness of community according to ideological propensity of young people.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ideological propensity distribution of Korean youth, anti-market propensity accounts for 33.9%, neutralist 38.2%, and pro-market 27.9%. Anti-market is slightly dominant and anti-market propensity of women was stronger than that of men. Korean youth has relatively strong negative attitude toward expansion of income disparities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companies and revealed relatively friendly attitude toward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on.

Secondly, according to logit estimation results, household inco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deological propensity of young people rather than youth themselves' income level.

Third, the intention to take part in a war and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depending on their ideological propensity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in the case of participation in the vote, Korean youth with pro-market propensity and anti-market propensity has higher endeavor to vote than those with neutral propensity,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the vote between the pro-market and anti-market was not confirmed.

Key words: attitude, ideology, market economy, KEEP.

